

◇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다
(사전 18:1)

충현

1974년 6월 23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윤 종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27) 9937 · 9738

<사 설>

차원 다른 땀방울

해마다 7, 8월 심복대회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공해로 오염된 도시를 떠나 물 좋고 공기 좋은 산과 바다를 찾아 바캉스를 즐긴다.

무더위를 피해 여름 한때를 자연속에 묻혀 지낸다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기에 모두가 바캉스를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그리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이 한 여름을 나기 위해 인색함이 없는 손길이 우리 교회에 와 머무를 때 우리는 과연 여기에 도인색함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예년과 같이 우리교회가 올 여름을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같이 우리의 땀방울을 식히는 일이 아니라 남보다 더욱 땀을 쏟아야만 하는 일들뿐이다. 여름어린이성경학교가 그렇고 중·고·대·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계수양회가 그렇다. 또 7·8월 복중에 실시하게 될 농촌지도자훈련과 농촌 전도대 파송이 그러한 것이다.

시원한 바다나 산에서라면 결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콩나물 시루같이 땀뻑하게 들어찬 좁은 교실에서 배우고 가르치노라면, 또 피약벌 아래 들쭉 찢을 지어 복음을 들고 시골의 논두렁이나 험한 산길을 해메노라면 우리의 온 몸은 곤하며 옷은 땀에 젖어 지독한 땀냄새만 풍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고달픔만을 보는 눈 뜯 소경이 되지 말자. 한 영혼이라도 구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배워 더욱 확신한 일에 구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삼키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굴고다 십자가의 고난을 맞볼 수 있을 것이며,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 주교 교육의 현장

<신영운 기자 찍음>

군중 사병 양성 훈련 실시

— 6월 17일~20일, 통일촌교회에서 —

지난 6월 17일(월)에서 20일(목)까지 3박 4일간 통일촌교회에서 육군 군중 사병 양성 훈련이 있었다. 이 훈련은 본교회 전도부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전군 신자화운동 요원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는 시부전선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90여명의 군중, 사병들이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본교회의 천성덕 목사, 이종영 전도사 그 외에 몇 분의 현지 군목이 각각

강의와 예배를 맡아 수고해주었다. 훈련의 내용을 보면, 낮시간에는 진도법, 상담학, 성경개론, 기도회 인도법, 찬송학, 군중 업무 등 주로 신자 양성에 필요한 이론 강의와 듣고, 밤과 새벽에는 부흥회를 가지며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다.

갖가지 어려운 교회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훈련이 큰 어려움이나 실수 없이 무사히 끝난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복음을 위한 교육사업이 있었으면 한다.

선교회 뱃지 제정

본교회의 해외선교부에서는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자성을 목적으로 선교회원들을 위한 뱃지를 만들었다. 남회원과 여회원을 구별하여 2가지 종류의 뱃지가 있는데 이 뱃지는 6월말 선교부월례회를 통하여 각 회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신성종 전도사 귀국

—철학박사 학위 취득코—



<우리교회에서 다시 일하게 되신 신 전도사님>

본교회에서 고등부를 지도하다가 1969년 신학연구를 위해 도미하셨던 신성종 전도사님이 귀국하셨다.

지난 6월 5일 귀국하신 신전도사님은 그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신약신학」이란 주제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어 템플(Temple) 대학에서 「바울신학」이란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Ph.D)를 받으셨다.

앞으로 계속 본교회에서 수고하

시며 총회신학대학에서 강의도 맡으실 것인데 사모님은 아직 미국에 계시며 연말에 귀국할 예정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대학부에서는 6월 16일(일)과 6월 17일(월) 양일에 걸쳐 유년부실에서 지난 5일 귀국하신 신성종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리란 무엇인가?」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대학부 청년부 회원 및 일반교우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큰 성황을 이룬 이 날의 특강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진리의 참 발견이 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다.

제 2 회

성경학원 종강

—5월 23일

저녁에 배시—

지난 2월 18일에 개강하였던 제2기 중현성경학원이 5월 23일 종강하였다.

그레서 본학원에서는 지난 6월 2일 주일저녁, 강사 정상우 목사님을 모시고 종강 예배를 드렸으며, 아울러, 총 50명의 학점 이수자들 중, 우등생 9명, 모범생 2명, 개근자 18명, 정근자 10명에 대한 수상식도 가졌다. 한편 제3기 개강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중현성경학원은 본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복음적 지도자 자질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것인만큼 전교인들이 이 목적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더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하는 학원담당자의 부탁을 전해 드린다.

개척교회에 전도지원

—청년부 전도부에서—

청년부전도부에서는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 시내 변두리에 소재하고 있는 개척교회를 찾아가 그 교회를

기점으로 일제 전도를 실시하는 일종의 전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5월에 시내 신일교회에 전도지

원을 나가 30여명 교인이 있는 교회에 40여명의 결신자를 얻은 청년부전도부는 지난 6월 9일에는 본교회 남전도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박현교회에 전도지원을 나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여 침체되어 있는 교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해외 전도여행

—대만 · 홍콩 · 일본 등지—

본교회 영문표기
Chunghyeon으로
통일

당회는 본교회 「중헌」의 영문표기를 「Chunghyeon」으로 통일키로 했으며, 또한 명칭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로 통일 사용키로 했다. 따라서 공식상으로는 문서에는 필히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를 요망하고 있다.

남전도회 임시 총회

—회장에 한명목 장로—

남전도회 임시총회가 지난 6월 9일 3부에배를 마치고 열렸다.

전임 임현덕 회장이 지난 6월 15일 미국으로 이민가심으로 그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것이 이난의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에 한명목 장로님이 당선되었다.

또한 새로운 회장과 임원, 전 회원들은 총회를 마치고 장충단공원으로 일제 노방전도를 나가기도 했다.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은 재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해외 전도여행을 떠나셨다.

지난 5월 31일 전도여행길에 오른 김목사님은 대만, 홍콩, 일본등지로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곳 교제를 돌려보실 것이다.

한달 남짓 예정된 금번의 여행은 재작년에 못지 않은 큰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귀국 예정일은 6월 28일이며, 그때까지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목사님의 이번 여행일정은 다음

과 같다.

5월 31일 출국

6월 7일 쌍연교회 부흥회, 산지 교역자 수양회 인도

6월 9일 중산교회에서 설교

6월 10일~12일 대북교회 교역자 수양회 인도

6월 13일~15일 관광

6월 16일 한인교회에서 예배

6월 18일 대만신학교에서 동창회 설교

6월 19일 홍콩

6월 21일 일본 교제 시찰

6월 28일 귀국.

제 9 회 경로회 성료

제 9회 경로회가 지난 5월 25일 (토) 12시부터 베풀어 졌다.

매년 청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로회는 금년들어 아홉번째,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

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경로회의 참석대상을 만 70세 이상의 본교회에 적을 둔 할아버지 할머니이다.

주교 10부 합동으로

교사 친교회

10부합동 교사친교회가 지난 6월 6일 선정능에서 가졌다. 매년 봄에 실시하는 교사친교회는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각부 교사간의 친목을 도모키 위해 10부가 합동하여 모인다. 금번 친교회는 200여명이 참석하여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 · 고 · 대 · 청년부 합동

웅변대회

6.25를 기념하여 열리는 웅변대회가 6월 23일 오후 3시부터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대학부에서 주관하는 이 웅변대회의 제목은 「이웃 전도의 최선의 방법은?」 시간은 일사 1인당 7분이다.

서만수 선교사 다시 정글로

—1개월여의 전도전략협의 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견, 본교회 제정 후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활동 중이던 서만수 선교사님은 지난 3월 15일 선교정책 협의차 잠시 귀국하셨다. 서 선교사님은 귀국 약 1주일 후인 3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1개월 이상 본총회 산하 전국 교회들을 두루 순회하시면서 현지 선교보고와 아울러 정글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회원 모집에 열중하셨으며, 3월 31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친 본교회 해외선교부 헌신예배에서 설교를 맡으시기도 하셨다.

선교정책 협의의 주내용은 그곳 주민과 거류민(교포)의 선교를 위해 회관으로 사용할 인도네시아 선교센터 건립선이었다.



<선교 보고 전시회의 한 모습>

한편 서 선교사님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난 5월 3일 C.P.A. 오후 5시 30분 발기로 홍콩을 거쳐 4일 오후 8시 자카르타에 무사히 도착하셨다.

■ 설 교 ■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



<왕하 20:1-11>

정 관 일 목사

유다왕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산헤립이 이끄는 18만 5천의 침공군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위난에서 벗어나자 중병에 눕게 되어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당신이 죽을 것이니 집을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난관속에서도 낙심치 않았으니 오로지 기도하는 힘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기도해 전념한 나머지 기도의 응답으로 15년간이나 더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 그러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밖의 선지 열왕들도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해 애원치 못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왕은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형선고를 받고 얼마나 서글뻔했을까. 그러나 왕은 단순한 슬픔에서만 기도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역사에 드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던 고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바랐던 것 때문입니다.

2. 히스기야가 생명연장을 위해 기도한 목적

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왕상 2:4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나이 39세에 자식 하나 없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왕하 2:6; 21:1참고). 이러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개인이 죽는다는 것은 비문제가 될 것 없으나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애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해악이 끊어짐에 서 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보다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히스기야가 사 38:18-19에서 드린 기도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유복가 주께 감사치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바울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으나 그가 지상에 살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오래 머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도중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시 30:9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리가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과 바울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의 생애가 그러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의 목적이 이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3. 교훈

가. 건강과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히스기야처럼(39세) 젊고 청춘 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죽음이 와도 웃으며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남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성인들이 누리는 쾌락을 위해서, 부모의 유산을 물려 받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바위의 기도는 못 들은 채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인간의 사정을 의논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갱 속에서 묻히고 물 속에 떠내려가고 불 속에서 그슬려 죽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 불마음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은 한,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도 「주여! 나 좀 살려 주세요」라는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전지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사람이 아니고는 우리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중병에서 회복시키지 않는가를 우리는 잊어서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 질병, 실패를 당했을 때 부르짖은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고 제심을 상기해야 합니다. 만일 서원의 기도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질병과 환난과 죽음으로 다시 집어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환난에서 벗어났으나 히스기야처럼 15년동안 생명 연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15일도, 15시간도, 15분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돈돈, 시간시간만을 노래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앞날을 살까요? 이미 불 속에서 그슬려 죽은 썩은 썩은, 어부와 함께 물 속에 떠내려간 썩은 썩은, 광부와 함께 갱 속에 파묻혀 묻혀 버린 썩은 썩은. 그리고 지금부터의 인생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던져 주어진 삶을 살으십시오. 이렇게 사는 자들만이 다급한 때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교회기관 소개 ① ■

> 성경학원 편 <

교회 설립 20주년 맞아 개원

=총 42학점, 3년 과정으로=

모든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함으로써 확실히 믿는 신자로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충현성경학원이 개원된 것은 교회설립 20주년을 맞는 지난 1973년 9월 18일이었다.

우리 교회가 오래 전부터 기도하고 구상하여 온 본학원이 문을 연 것은 불과 9개월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우리교회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이다.

수업은 매주 4일간(월·화·수·목)야간수업으로 3년동안 6학기에 총 42학점을 얻음으로 졸업하게 되지만 개인의 사정이나 편의에 따라서 3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6학기만을 마치면 졸업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는데, 현재 지난 5월 23일에 2학기가 모두 끝나고(1학기 54명, 2학기 50명 수료) 오는 9월초에 3학기가 개강될 예정이다.

교과내용은 신구약성경 전권을 중점으로 하여 1학기에는 구약개론·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이사야·공관복음이 강의되었고, 2학기에는 성경개론·이사야·여호수아·사사기·민수기·요한복음·사도행전이 강의되었다.

강사진은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을 비롯하여 총회신학대학장 김희보 목사님 및 본 교회 백성룡·김재창·정상우·김종택·전성덕 목사님과 홍종만 전도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은 까다로운 절차나 조건이 없고 우리교회 교인으로 순수하게 말씀 연구를 소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김 창인 원장>



<신 게택 원감>

입학할 수 있다. 단지 6학기분 입학금 500원과 매학기 수업료 1,500원만 내면 강의에 필요한 모든 프린트 교재와 기타 숙제지가 무료로 배부된다.

현재 충현성경학원이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3년 과정의 성경연구 외에 주일학교 교사양성·가정교육 지도자(부모) 양성·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6개월 과정의 지도자양성부가 있으며(5기생까지 모두 216명이 수료하고 현재 6기생 68명이 수업중) 충현성경학원 개원과 함께 개관된 국내 유일의 본격적인 교회도서실인 충현성경학원 도서실이 현재 신학·교리·성경주석·교양 등 1천 1백여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하루 10시간 개방하여 교직원과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1974년으로 3년째를 맞게 되는 농어촌 교사 초빙 훈련을 비롯하여 금년부터 실시한 우리 교회 단기수련회(행정강습, 교사·교역자·제직·평신도·성가부·임원 수련회)와 평신도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 지도하는 충현성경학원 독서회가 운영되고 있다.

충현 성경학원의 금년도 사업 총예산액은 220여만원(순수한 학원운영비 90만원)으로 이와 같이 교회가 평신도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많은 인원과 예산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하여 아직 충현성경학원의 사업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이유인지 일반 교우들의 호응이 매우 아쉬운 형편이라고 한다.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을 배우며 연구할 수 있고 보다 진실한 평신도로 훈련받을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이러한 기회를 무관심으로 거머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다.

• 충현성경학원 조직

원장: 당회장 김 창인 목사

원감: 신 게택 장로 이사: 위 영환 장로 외 9명
교무: 홍 종만 전도사 서무: 김 창배 장로

<표>



<성경 연구에 여념없는 어느 수업시간>

◇ 특집 : 증현교회 주교교육의 당면과제

4 개 측면에서 고찰

— 교과과정, 교사, 학생, 시설면 —

- ◇... 천국일군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본 교회는 설립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주교 교육은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교과...◇
 ◇...과정, 교사, 학생, 시설면의 4개 측면에서 이를 고찰, 우리의 자성(自省)과 아울러...◇
 ◇...새로운 방향의 길을 찾아 앞으로 발전에 더힘들이 되었으면 싶다 ...◇

교과과정면에서

교과과정은 교육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이다. 교육의 이념과 교육의 목표를 교과과정을 보아서 읽을 수 있게 된다. 본 교회에서는 천국 일군을 양성하자라는 구호 아래 교육위원회는 성경과 이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앙원리를 교수하여 실천케 하고 진실한 일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몇 해 전에 교과과정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시안을 세운 바 있다.

교과과정의 목표는 성경과 이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앙원리를 교수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을 일고하면,

신입부: 6주를 기간으로 하여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의의 생활, 인내의 믿음으로서 새 신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것을 교수토록 한다.

유치부: 3년제로서, 현재 주일공과용으로 1년분만 완성되어 앞으로 2년, 3년용 교과 편찬이 요구 된다.

유년부: 3년제로서 주일 공과 제단공과 총회 발행, 주일저녁: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계절학교(여름, 겨울):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초등부: 3년제 주일 공과: 제단공과(총회발행), 주일저녁: 역대상에서부터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계절학교: 히브리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중등부: 3년제 주일공과: 총회발행 공과 주일저녁: 신명기, 공관복음, 왕상하, 사도행전, 이사야, 히브리서, 토요일은, 산상수훈, 주기도, 소요리문답.

고등부: 3년제 주일공과: 총회발행 공과, 주일저녁: 신앙고백서, 교회사(사건중심), 성경열람.

대학부: 3년제로서 주일공과는 교리학서론, 신론, 인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칼빈주의, 토요일 집회는 비교종교학, 성경신학 기독교윤리, 로마서 주경, 교회정치, 교회사 교수법, 종교심리와 기타 특강과 계절학교를 통하여 심학강의를 하게 되어 있다.

청년부: 교회봉사를 위주로 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장년부: 주일공과(총회발행)

노년부: 노년기를 신앙으로 견고케 하고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생활방법을 교수케 한다.

이상 열거한 교과과정을 간추려 보면

① 성경교육(신 구약)을 5회이상 반복 교육하므로 성경교육을 제일로 하고

② 교회사를 사건중심, 교리중심으로 반복 교육하므로 바른 역사관을 길러 주고

③ 교리체계를 확립하여 개혁주의에 입각한 신앙을 확립하여 교회의 지도자나 봉사자를 양육함이 있다.

그러나 아직 하여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교과과정의 재조정 및 주일 저녁용(각부)교과서, 중·고등부 제단공과, 대학부등 교재 등의 편찬이 시급하다.

<천성덕 목사·대학부 지도>

교사면에서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위하여서는 첫째로 상당한 수준의 교사와 둘째로는 시설이 필요함은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교사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자 한다. 피교육자에게 미치는 교육의 정도는 교육하는 교사의 수준에 더 하지도 덜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보통 좋은 학교란 좋은 선생이 있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교사의 자질은 곧 그 교육의 효과와 직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수급과 질적향상을 위한 대책은 주일학교 운영에 중대한 문제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교회 10부 주일학교 교사 수급상황을 보면 현재적 약 300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 중 결원이 생기면 각부 빌려 교인 중에서 적당한 사람이 눈에 띄는대로 부탁하여 보충하는 형편이다.

좀더 실효있는 교사수급대책을 위하여 1972년도부터 지도자 양성부를 신설하여 교사를 양성하여 약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1973년도부터 지도자 양성부를 거쳐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정교사로 임명하기로 한 것은 발전적인 대책이다. 계속 일어나는 교사의 결원에 대한 보충이 점차로 순조로워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숫적으로 부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격있는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보다 더 엄선하여야 할 교사 인선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다

그러므로 자격있는 교사의 확보를 위한 보다더 계획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남녀 세례교인과 특별히 550여명의 남녀 제직은 막대한 교사의 수급원이 될 것이다. 제직교사 300명중 제직원은 98명 뿐이다. 아마도 주일학교 교사라면 적어도 제직원 정도의 신앙수준은 되는 것은 이상적이다. 본 교회로서는 어떻게 하여 이 물려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커다란 당면과제이다.

다음으로 헌직교사의 계속적인 자질향상 문제이다. 교사는 기독교교육의 최전방의 교육자이다. 교육자는 전문직이다. 신앙이 없이 기독교교육은 얕되지만 신앙만 가지고 교육은 얕된다.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기능이 필요하다. 계속 신앙 인격을 닦아야 한다.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신령한 생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 각자가 힘써야 하겠거니와 교회적인 계획적 추진이 필요하다.

매달 교사들에게 배부되는 「교사의 벗」을 잘 이해하였다. 교사에 대한 정보의 전달과 교육을 위한 월간지가 필요하다. 뜻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연구활동을 하게하면 좋겠다. 수시로 계획적인 교육을 위한 특별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항상 되어진 현재에서 더 많은 향상을 위하여 물려있는 자원들을 연구개발하는데 더욱 힘써야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육적 사명을 다한 뿐 아니라 남들에게 시선의 대상이 된 대교회로서의 막중한 사명은 다해야겠다.

<홍종만 전도사·초등부 지도>

학생면에서

한국에 온 어느 한 말레이아 유학생이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보고 느낀점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대학생들 중에는 강의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 또 강의 도중에 빠져나가는 학생이 더러 있음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의가 없거나 또는 휴식시간에 캠퍼스내의 잔디밭이나 벤치에 앉아서 즐겁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한번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자기 나라에서는 감히 강의도중에 나가거나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도 없으며 또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모두가 도서관으로 몰려들어 길게 줄을 이룬다는 것이다.

어떤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아오는 학생 한 사람을 보고 그 학생더러 오늘 교회에 나와서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이나고 한다면 아마도 그 학생은 다음의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교회 학생들 가운데에는 웬 지각생이 이리 많은가? 예배가 시작되 후에 들어오는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회벽에 붙어 있는 성경읽기 그래프를 보고 또 한번 놀라리라 교회 출석 학생 374명 중에 성경을 읽는다는 학생은 그대 겨우 28명이란 말인가? 이는 백명 중에 8명 정도에 해당된다.

서울시내 어느 여자 고등학교학 3년 성경 중간고사에서 사도신경을 써 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한 학생이 무려 2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요 이들 학습 학생 57명중에는 거의 대부분인 55명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상반에서이다.

필자는 고등부에서 몇년간 생활하여 본 적이 있다. 그 동안에 절실히 느끼 감은 바로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학생들의 시간 지키는 문제와 그리고 성경 지식의 결핍이라는 두 가지 문제이다. 어느 부에서는 늦게 오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한 방안으로 그들에게는 주보 및 부분에 “늦었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어서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담에는 어느 부에서는 월훈 가운데 지각하지 말자는 것이 들어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듯 예배 시간에 지각을 예사로 하는 이들도, 아마 모르는기는 하지만 학교 등교 시간에는 이렇게 늦지는 않음 줄로 안다. 학교치고 이렇게 지각생이 많은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던 말인가?

시간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기독교학생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이요 전사의 무기인 이 성경 말씀의 공급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중에서 적지 아니한 큰 문제로 본다.

<이준교 집사·대학부 교사>

시설면에서

“천국 일꾼을 키우자”는 슬로건 밑에 주일학교 교육은 날로 흥왕하여 가고 있다. 이 추세에 맞추어 교육시설의 확충을 기하고져 지난 해 봄 새 교육관 건축, 계획을 세웠었으나 뜻하지 아니한 건축 허가상의 애로에 봉착, 이를 해결치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일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컸음을 통감하면서 머지 않은 시기에 종합시설을 갖춘 교육관 건립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교육 시설의 현황

10부 주일학교의 예배실은 본당과 본당 하층 그리고 별관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1,2부 사무실과 성가 연습실 등은 부속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가. 예배실 및 비품

예배실은 각부 단독 사용은 기이 없고 대부분 공동 사용으로 시간 배당제를 취하고 있고 분반공부시는 중 고등부는 등 예배실 외에 유치부실, 유년부실까지 겸용하고 있다.

나. 도서관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설치된 도서관은 주일학교 교사와 대학생급 이상 학생, 성경학원 학생 및 일반 교인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교정

알 들 약 100평 보유

2. 문제점

예배실은 협착한데 10부 주일학교의 총 출석수는

인원수는 교사 포함

부	명	74년 4월 평균출석수	예배실	사무실	마이크	선공기	환등기	기타
제 1 부	새신자	98명	본관1층			○	○	
	유치	162	별관 "	○	○	○	○	
	유년	284	본관 "	○	○	○	○	
	초등	411	" 2층	○	○	○	○	
제 2 부	중등	421	별관4층	○	○			
	고등	319	" "	○	○			
	대학	133	별관4층	○		○		
	청년	106	" 2층		○	○		
	장년	182	본관1층		○	○		
계		2,116						

2,116명(74년 4월 평균)에 이르고 있고 시간과 장소 등 안배로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 중등부의 예를들면 43명 예배실에 장의자 85개 즉 425명의 좌석인데 현재의 출석수 421명과 맞먹고 있고 연초 450명 선 출석 시는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별관 복도는 통행자로 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100명 안팎의 앞들은 본 교인을 제쳐 놓고도 주일학교 학생 2116명을 상대로 보면 실로 1명 당 21명 꼴의 사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수용력의 과다와 시설의 빈곤은 건전교육의 효과면에 큰 지장이 될 뿐더러 안전 보장면에 있어서나 하절기 보전 면에 있어서 염려가 아니될 수 없다. 이에 교회 당국자나 주일학교 지도층의 각별한 배려가 요청되고 또 피교육자나 온 교우 전체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3. 해결 방안

그렇다고 신축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아직 희박하고 보니 우선은 현재의 시설 규모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교육의 효과를 쌓아 올려야 하겠다. 즉 교회 당국이나 주일학교 지도층은 관리와 통솔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피교육자는 협동 정신을 발휘하여 난관을 극복하는 확실한 신앙 훈련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다음 사항을 재 음미하고 또 강력히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가. 예배실의 합리적인 안배

- 나. 시간 관념의 투철과 생활화로 집회 시간의 준수
- 다. 실내 정돈으로 좌석의 효율적인 사용
- 라. 공동 사용의 처지에 있어서의 이해와 협조
- 마. 안보를 위한 대책 강화(화기 단속, 비상출입구 정비, 위험물 제거 등)
- 바. 하기 위생
- 사. 소음방지
- 아. 노후 부속 건물의 보수 등

급변 다행한 것은 교회당 동원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어 오는 6월 하순에는 인수가 될 것이다. 대저 125평 9층 건물 2층 연 114명으로 시설 부족으로 열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건물과 알뜰한 교육

시설에 충당할 수 있도록 당회에서 구상중에 있어 7월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국의 보배를 주님의 교훈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요, 또 자랑인 것이다.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 기도로 힘을 얻고 믿음의 역군을 배양하는 일에 너도나도 심혈을 기울리기를 바란다.

<위임한 장로·고등부 부장>

* * * *

◇ 피교육자의 발언 ◇

회개한 믿음 위에

이 영 철

<고등부 1년>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을 따라 영락교회에 다녔다. 내 스스로의 신앙 노선은 도저히 서 있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 출석을 싫어했던 것이다. 이러다가 5학년 초에 이사하여 가까운 우리 교회에 나와 이 동산에서 은혜의 이슬로 자라난 것이다.

이제 회개를 돌려 말하면, 우리교회 유·초등부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중등부로 올라가면 일부 학생 중에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고 열심을 잃어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즉 무엇보다도 길가에 떨어진 돌팔배에 떨어진 씨앗이고, 그밖에 학생들 사이의 신앙적인 교제의 결여와 교사님들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만한 신앙 인격적인, 시간적인 여건의 부족이라 생각한다. 또한 요사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좁은 교실에서 복제작거리며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학교 수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 되지 못했다.

나는 가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하면서 나의 아는 한도에서 그들의 분명하지 않은 성경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신앙 등에 대하여 설명하곤 한다. 또한 기독교성다운 경건한 모습이 결여된 것을 본다. 이 모두가 말씀의 씨앗을 바로 심지 못한 바로 받아 들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특히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서는 우리의 처음 신앙, 즉 20년 전의 태오르던 신앙의 생각과 그에 따른 기도예의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적이 아닐는지?

따라서 우리 중현의 새학들이 전진하게 자라나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온 교회가 한가지로 회개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기도와 노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특집 : 충현교회 주교 교육의 당면과제

» 좌담회 «

시급한 교사의 자질과 시설

◇...「충현 교회 주교 교육의 당면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도교역자와 일선 교사들을...◇
 ◇...모시고 교사들이 느껴 온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좌담회를 지난 6월 2일 가졌다. ...◇

참석자 : 정연희(유치부), 장병기(새싹자부), 권석기(초등부), 조경숙(대학부), 정은표(초등부), 신재원 기자, 박윤식 기자.

사 회 : 박영자 기자

기 록 : 김현권 기자

주교 교육의 목적과 의의

사회 :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의 목적은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서로 이야기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교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조 : 일반 교육은 주로 지식 위주로 가르치는 반면, 기독교 교육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생활을 육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 :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기독교 교육의 유일한 목적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천적 크리스찬의 양성

조 : 물론 구원에의 확신을 전제로 하고 나아가서 실제 생활과 영적 생활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앉아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단일한 구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확신과 동시에 행위로 표시할 수 있는 실천적 크리스찬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그러면 권선생님의 의견은?

권 : 주교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외적으로는 처해 있는 생활 환경과 잘 연관시킬 수 있도록 교사가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그러면 현 우리교회 교사들의 자질에 대해서 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장 : 교사는 모름지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무디같은 무식한 자라도 생명을 사랑하는데 지극한 정성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조 : 대학부에 있어서 학생들을 지적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다른 어느 부보다도 중요하면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그들 나름의 주관이 서 있으며, 특히 실생활과 성경 말씀 사이의 갈등과 고민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인격으로 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지식과 신앙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화분에 물주며 기도

장 : 학생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 집에 학생 수만큼의 화분을 준비해서 반 아이들의 이름을 한명씩 적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잠깐 기도하는 방법인데, 그때서 제가 그렇게 실행하다가 겨울에 꽃이 모두 얼어 죽어버려 제속하지 못했습니다(웃음).

사회 : 학교와는 달리 교회에서는 한곳에 둥지놓기 모여서 공부하는데 공부 시간에 주위 환경과 학생의 주의 집중 정도는 어떤지요?

권 : 시간 중에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 : 우리 반 아이들도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데,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어린이 예배가 어른 예배의 형식과 너무 유사한단가 말이죠.

사회 : 교육 자료는 충분합니까? 선생님들은 시청각 교재같은 것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요?

장 : 특히 새싹자부에서는 시청각 자료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할 때는 잘 이해를 못하다가도 성경 이야기가 그려진 그림책이나 성화 등을 모아 두었다가 보여주면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더군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같이 특별한 절기에는 더욱 좋지요. 무엇보다도 주의를 집중해서 관심있게 문도록 하는 때는 제일입니다.

사회 : 교사님들이 주일 공과를 어느 정도 준비하시는지요.

박 : 저는 준비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에 다음

에 가르칠 공과를 읽어보고 한 주일동안 틈틈히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관계되는 성경 이야기들을 모아 정리해서 돌려주지요.

사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을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이론보다 산교육 위주로

정: 특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이념을 실천시킬 수 있는 산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머리 교육 즉 이론 위주의 교육이지 실생활에서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상을 타기 위해서지 혹은 심방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지 의심이 갑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듣는 동안 마는 동안 장난만 치는 것을 볼 때, 어린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정: 그렇지만 사실 교사들이 교육 이념을 몰라서나 혹은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사로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에서 자신감없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박: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시대에 피안적인 신앙 생활을 강조하던 경향에서 유래된 구원과 또는 기복 교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현재의 교회 교육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 교육에는 장소, 교육자, 피교육자, 교재의 요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교육 환경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 네, 현재 재검토할 점들이 많은데 저는 환경보다 지도자의 문제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주위 환경 같은 지도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능력을 소신껏 발휘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 때문에 교육다운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도자의 능력 발휘에 문제

신: 저는 지금의 교육이 진정으로 어린이 즉 피교육자를 위한 교육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네, 저도 주어진 상황에서 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지만 저는 역시 환경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제한된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장소의 제약이 프로그램을 제약하며 나아가서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게 하며 궁극적인 교육효과를 무효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전국에 이름이 난 만큼 한국 사회의 기여도가 극히 적은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인간 양성에 힘을 쓰면서도 천국인간 양성을 위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극히 빈약한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네, 참으로 학생들을 고려하여 연령 차라든가 교육 정도에 따른 확일적, 고정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더 활발하고 역동성이 있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개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네, 시간이 많으면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문제는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별로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였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시고 얘기해 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 × ×

모든 교인은 등록을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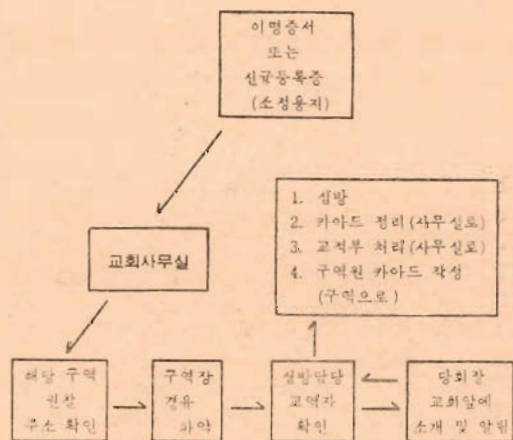
모든 교인은 등록을 합시다. 등록을 하지 않은 교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은 교인은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교회의 어떠한 봉사적책도 말할 수 없으며, 구역 심방 및 대심방·결혼·상례 등의 혜택이나 협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은 한사람 개인으로나 전 가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생이나 청년회원 또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등록하지 아니한 모든 교우는 등록을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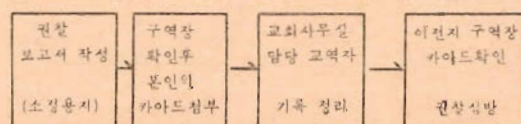
등록하는 방법은 각구역 권찬이나 각 구역자 또는 전도사님들을 통하여나 아니면 교회사무실로 직접 찾아 오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교회는 금년 4월말 통계로 64개 구역, 등록 세대수는 1,788세대입니다.

<등록 절차>

(1) 이명 및 신규등록 계통



2) 주소 변경 보고



◇ 번역문 ◇

유 산 은 죄 인 가

라이스 박사의 “유산”에서

박 행 렬

<세신자부교사>

수년 전 여러 선진국에서 대두 되었던 유산 문제가 오늘날 각 정부의 합법적 보호하에 공공연히 실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73년 모자(母子)보건법에 의하여 정식으로 법적으로 유산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 옷깃을 여미고 세상의 풍조나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라이스 박사는 “유산(The murder of heldless unborn-abortion)” (본 교회 도서실 소장)이라는 책에서 이미 가정을 이룬, 혹은 가정을 이룰 크리스찬들에게 이와같은 문제의 일면에 대해 성경적 해답을 보이고 있다. 저력상 그 일부만 번역 혹은 요약한다. 단 저자는 본 책자에서 태아로 인하여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때, 둘 중 어느 생명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역자주)

“죄가 장성할수록 더욱 죄를 범하게 조장하는 것이 사탄이요, 죄인이다. 우선 그들은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고 반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파기 하고 영화마다 광고마다 성적인 것으로 대치하고 있다. 상황 윤리는 “사랑”만 있다면 성개방이 자유롭다고 말하며, 과거의 거룩스러운 간음을 “새로운 윤리”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수세기 동안 그 아무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인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각 개인을 죽이는 것처럼 그것은 살인이었다. 문명된 국가의 법도 그렇게 말했다. 교회 강단에서도 이렇게 외쳤다. 세계의 많은 양심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라고 서두에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혜보다, 법적 근거 혹은 세상의 풍조를 무분별하게 따르는 어두워진 세계의 양심을 지적하고 있다. (역자주)

저자는 “첫째로, 살인에 대한 경고와 형벌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어린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져야 되고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 성경적 또는 법적 사실이 임신된 때로부터 태아는 생명(living soul)이요, 인격임을 보인다. 넷째로, 유산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합리하고 불성실한가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유산은 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중 두번째 소재에 관하여 번역하고자 한다.

II.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 주어진 그대로 받아져야 된다. 주 예수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기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도 아름답게 옷 입히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확실히 그 어떤 어린 아이라도, 그 어느 필멸의 인간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 그것이 성경이 밝히 말하는 바이다. 시편 127:3-5에서, 어린 아이는 “여호와와 주신 기쁨”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돌보려 하지 않는 것이며, 그와같은 것은, 죄가 아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의 한 부분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새로이 지음받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되겠다.

1. 자녀는 기도의 응답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창 17:15, 16), 이삭과 리브가(창 25:21), 레아(창 29:31), 라헬(창 30:22), 한나(삼상 1), 엘리사벳(눅 1:1-4:13) 등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은 임신의 때에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물 중 하나를 파괴한다는 것은 분명 죄이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을 특권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신 것을 보호하시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로 인도 하신다」

□ 방송 설교 안내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창인 목사 담당—

- 기독교방송(HLKY)
- 매 화요일 오전 5시 45분~6시

● 젊은이 페이지 ●

편 식

임 성 운

<유년부 교사>

작년 여름 우연히 세속적인 교회로 지목을 받고 있는 K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데 예배시간의 아주 특이한 광고가 나를 멍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생각난다. 즉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들이 자기 설교에만 의존하는 편식주의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이상씩 외부 교역자들을 초빙해 온다는 요지의 광고를 하시며 다음 주일은 Y선대의 S박사님이 설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편식주의자라는 단어가 자꾸만 머리에 떠올랐다.

X

유기적 영감론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저자들의 인격(人格), 즉 개성, 교육의 정도, 환경등을 100퍼센트 이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론이며 우리들의 신앙고백의 한 구절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체적인 인간으로 적시해서 태어난 때의 상이점, 생의 과정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주시며 그러한 인간들을 차이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영광과 우리에 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소명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표현의 형태는 인격의 차이점이 현존하기 때문에 각인 각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강단에서 외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성경의 바로 해석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치 재판의 판결이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적용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밝히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구체적인 인격, 환경 등등을 이용하시어 성도들에게 생을 살아가는 데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 힘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인격, 환경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설교자는 특정한 면을 강조하여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증거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인격의 구체적 차이점을 망각하고 자기의 설교만이 최상의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역자들도 병목적으로 그렇게 추종하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어느 서기관에게서 “선하다”는 칭호를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대답하신 대답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편식주의자라는 단어가 생겨날 것이며 특정한 면에 관한 말씀만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다른 면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에서 실패와 좌절이 끊어지지 못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가운데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당회장 목사님은 신년 설교에서 또 누차 이단만 아니면 화목하자고 외치셨다.

이러한 화목의 의미는 교파간의 대립 문제만이 아니고 인격의 구체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설교에서의 소위 편식을 탈피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파간의 대립을 떠나서 은혜받은 귀한 하나님의 중들의 구체적 신앙체현을 자주 접하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문에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볼 때에 신앙적 체현이 풍부한 여러 교역자들을 모시고 있는 중현성도들은 우리의 행복한 처지를 깊이 감사해야 할 줄로 생각한다.

◇ 독후감 ◇

할레스비의 「기도」

김 현 권

<대학부 회원>

기도생활의 어려움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믿음, 새 생활의 중심이 기도 생활임을 잊고 신앙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음은 명약 관화한 사실이다. 그것이 내적생활인 고로써 더욱 그러했다. 기도의 시간은 항상 밤 12시가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호와 간절의 기도는 사라지고 강박한 심정만이 내 속에 자리잡고 자연 지사로 기쁨이 없는 나날이 습관적으로 왔다간 가 버렸다.

이러한 때에 할레스비의 「기도」를 읽게 됐다. 기도의 사실에 대해 내심의 지옥한 불확신과 응답을 찾지 못했던 믿음의 결여, 이에서 기인하는 신앙생활의 타성과 배제되어야 할 무의미한 습관성 그리고 낙심, 무력, 내면……

이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한 나의 제인식이 시작되었다. 과거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함을 많이 들었지만 지나치는 바람소리, 외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여기에서 나는 올바른 기도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자는 많은 신자들이 당면하

는 기도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기도해 노력한 심령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성질, 어려움 등을 잘 알려 주고 있다. 나는 기도에 대한 부담도 느꼈지만 사실은 기도해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구멍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기도하는 심령이 갖게 되는 분명한 표적은 무력감이야. 나는 이 무력함을 생활 속에서 많이 느꼈지만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함에 어려움을 느꼈다. 저자는 기도가 간단한 일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일이며 예수님을 우리의 고통 속에 참여 시키는 일, 그래서 이 책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나의 무력함에 모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도의 어려움과 낙심은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타났다. 내심 저 깊숙한 곳에서 일련의 불확실한 감정이 솟아나 불확실성과 믿음의 사이를 방황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족도 알게 되고 괴로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그 무력함이 비단 나만의 경우일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은 먼저 믿음의 연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불행자들은 기도가 나날의 피난처요 위안요 나의 삶의 통성하고도 다함이 없는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고 망각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나태 때문이라 한다. 기도는 도구인 까닭에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어려움이 없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다. 또 우리는 기도의 영이 우리로 기도할 바를 가르침을 기다려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규칙적이며 조용한 시간을 낼 것을 지적한다.

기도는 우리의 애씀보다도 기도의 영과 우리를 조화시키는 곳에 중요성을 둔다. 성령의 권유를 듣고 그 지지하는 바를 따를 때 우리는 기도의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이러한 면이 없었음을 시인한다. 그럴지라도 기도와 실천의 그 중 교제작용에서 이러한 것을 얻고 싶다. 저자는 기도 생활의 실패가 자신의 안이함이나 자기의 정욕대로 구했음에 기인함을 잘파하고 인간이 할 일은 단지 자기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그에게 전부 맡길 때 평안을 느끼며 그 순간 기도의 영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며 이 평안과 안전을 경험함이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때 기도의 어려움은 제거되며 기도의 응답을 보았으며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 그리고 그에 뒤따른 낙심한 때문에 즐거움은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다. 율법대신에 진조함을 찬송대신에 불평을, 사랑대신에 미움을, 감사 대신에 은혜를 모르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참으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솔직하고도 숨김이 없는 의견을 비침으로 신앙생활, 기도생활의 애로를 느끼는 신도들을 통성하고도 알찬 길로 인도해 준다는 감(感)을 느끼는 바이다.

두 주 인

윤 완 철

<초등부 교사>

믿는 자는 택함을 입었다 한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믿는 무리를 사랑하시자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셨다. 그 세상은 분주하다. 전 인류는 오늘 바쁘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택하신 백성은 세상과 똑같이 바쁘다. 돈이 보인다. 권력도 탐난다. 명예는 누구나 좋아한다. 사랑은 얼마나 애착이 가는가. 세상은 아름답다. 풍요하다. 넓다. 아, 우리는 분주하다.

이것은 부끄러운 감상문이다.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 있다. 세상을 향하여 팔팔하게 살아 있다. 그게 말이다. 주님은 섭섭해 하신다. 골 3:3에 “너희가 죽었고” 하시지 않는가. 바로 그 앞절에 “위엿것을 생각하고 땅엿것을 생각지 말라”하신다. 위엿것을 열심히 생각하는 우리 신자들은 주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잘하며 예배시간에는 엄숙히 인내성있게 앉아 있는다. 설교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진정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도도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한다. 과연 우리는 위엿것을—그리고 땅엿것도—생각한다. 물론 전자를 후자보다 「더 많이」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다. 땅엿것은 생각지 말아야 한다. 세상 염려는 망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권력이란 놈은 꾀를 수 없는 맛이 있다. 저 명예는 참 아깝다. 지식은 참으로 달다. 그러나 우리 조상이 범퍼할 때의 생각이 “먹음직도하고 보암직도 하고”였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며 세상과 밋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무릎을 꿇자.

세상에 속한 것으로 눈멀지 않은 신자가 복이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치 못한다. 교회의 모습이 권력과 명예에 눈먼 목자에게 끌려가는 먹이에 눈먼 양떼가 되어서는 불쌍하다. 세상에 붙은 욕심을 버리라. 어렵다.

그러나 적당히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열쇠는 열쇠자로 생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갈 6:14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박혔다 한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면 우리중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되고 싶지도 않다. 주께서 못박히신 십자가가 저기 있다. 도마의 킁킁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포도즙 이야기

—즙(汁)과 주(酒)의 구별—

최 석 주 장로

대식방이나 교우의 경사로 그 가정에 초청을 받고 보면, 흔히 후식이 나온 다음 음료수로 주인의 특별한 설명까지 곁들인 포도즙이 나온다. 글라스에 색깔이 곱고 향긋한 좋은 음료를 대접받는다. 잔이 분배되어 마시려고 입 가까이 대면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난다. 잔을 들며 내려 놓으면 주인은 당황해서 주정(酒精)이 절대로 아니고 순포도와 설탕으로만 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잔을 권하니 체면에 못 이겨 깨끗하게 잔을 비우는 것이 통상 예인 것 같다. 포도농사가 잘 되어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쉽게 만들수 있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같이 만들어서 마시는 모양이다.

지금은 오래 전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손수 만들지 못했을 때는 성찬식 흔히 포도주를 사다가 설탕과 물을 섞어서 사용하였던 일도 있었는데, 이것이 시정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성찬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니 속히 고쳐져야 할 일인 줄 생각한다.

포도는 다른 어떠한 주정(酒精)을 가입하지 않아도 자연 발효가 되어져 그 도수가 매우 독하다고 한다. 이리고 보면, 우리는 부지중에 포도주를 대접하게 되었고 또 마셨던 것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 포도를 제배해서 그것을 마셨고 취해서

벗은 몸으로 실수를 범한 기사가 있으니, 의인이 어더 하였거든 하물며 우리들이랴!

사소한 일이라고 간과(看過)할 수도 있겠으나 두려운 결과를 우발케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큰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주변에서 퇴폐 풍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선을 정 마비시키는 이러한 것은 속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순수한 즙을 만들어 보관하여 몸에 유익하고 덕(德)이 되며 귀한 분에게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부지중 취했던 생활을 청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계몽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지도자와 감독자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참고로 그 제조 방법을 기술한다.

첫째: 포도를 물로 잘 씻어서 광주리에 담는다.

둘째, 포도송이를 알알이 따서 그릇에 담고 손으로 주물러 터친다.

셋째, 큰 솥에 물을 끓이고 포도가 담긴 그릇째로 끓는 물에 잠기게 하여 온도가 섭씨 약 70°~80°로 끓인다(이 때 포도 색은 붉은 보라색으로 된다).

네째, 이것을 삶거나 나일론 망사에 넣어 찐다(찌꺼기는 따로 두고 짜낸 포도즙은 다른 그릇에 담는다).

다섯째, 끓는 물솥에 그것을 그릇째로 올려 놓아 증탕한다.

여섯째, 증탕하는 포도즙에 설탕을 포도 한 관에 설탕 한 근 비율로 가입하여 끓인다.

일곱째, 끓는 물에 사이다병을 넣어 잘 소독한 후 증탕된 포도즙을 넣어 병마개를 한다.

여덟째, 송진과 밀초를 녹여서 병마개가 보이지 않도록 밀폐하고 찬물에 담구어 식히면 된다.

이와같이 하여 지하실에 보관하면 10년 이상 보관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권장하는 바이다.

컬 럽

충현동산에 올라

정 은 표

서울 중앙에 있는 목멱산(木覓山)의 속칭인 남산(南山)의 높이는 해발 273m에 불과하다. 2년전부터인가 남산 팔각정에 오르는 길을 제외하고는 산 전체를 철책으로 둘러 놓았기 때문에 바로 산 밑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창경원 동물처럼 산 전체를 걷고 긴 철책으로 가두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무가 더러 있고 고층건물의 숲이나 도심의 인파의 숲에서 들을 수 없는 새 소리라도 들을 수 있기에 그리지는 몰라도, 언제나 올려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남산보다 훨씬 높은 산중에 사는 사람이라 해도 어쩌다가 아들딸 덕분에 서울 구경을 하게 되거나 지방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남산은 배놓을 수 없는 여행 코오스처럼 되고 있다.

이처럼 높지 않은 남산이 그 어느 산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눈에 서울 장안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산의 정상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이 뾰족한 아스팔트길이나, 제왕의 요새처럼 목직

하고 큼직한 철문만이 보인다면 누가 굳이 남산에 오르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길다고는 볼 수 없는 20 여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쌓아 온 충현동산이 정상급이라는 표현은 겸손하지 못하기에 사양은 하겠지만 상당한 높이에 이르렀음은 자타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충현동산에 오르고 있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곳의 사람들이 충현동산에 올라 보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충현동산에 올라 보면 아직도 많은 장애물들이 환락 트이어야 할 충현동산의 시야를 가리고 있음을 본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많은 장애물 중 대부분이 외적 조건이기보다는 내적인 것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시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너나 없이 온 정성을 들우는 데서 우리의 시야는 시원스레 트이게 될 것이다.

타인의 비평의 여지가 없을 만큼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본의는 아니겠지만 한국적 상황을 의면하는 듯한 우리끼리만의 활동은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높지 않은 남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서울 장안을 내려다볼 수 있듯이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충현동산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세계의 곳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충현동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기 관 소 식

- ☞ 새신자부(교육 제 1부)에서는 새로 총회신학대학 연구원 재학 중인 이 승근 전도사님이 취임하였다.
- ☞ 주교 제 1부(새·치·유·초등부) 여름이린이 성경학교가 7월 29일~8월 1일까지 본교회당에서 열린다.
- ☞ 유치부는 지난 부활절 오후 「그리기 대회」를 열고 입상자들에게 시상하였다.
- ☞ 유치부는 지난 5월 25일 청년부 주최 경로회에서 순서를 맡고, 준비한 솜씨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맘껏 즐겁게 해 드렸다.
- ☞ 6월 23일 오후 3시 유치부에서는 「성경의기대회」를 여는데 성경은 시편 중에서 새삼받은 100편을, 꽃반은 1편을, 열매받은 103편 2-9월을 외게 되어 있다.
- ☞ 유·초등부는 지난 4월 1일 1학기 성경시험을 실시했다.
- ☞ 유년부는 지난 5월 12일 1학기 숙제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 가졌는데 이날 시상 대상자는 60여명에 달했다.
- ☞ 초등부에서는 악기소유자를 파악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악기전도대를 발족했다. 이 악기전도대는 매월 1회이상 노방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 중등부에서는 지난 4월 27일(토) 오후 6시 본당에서 「작은 음악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한 음악회를 가졌다. 합창, 중창, 독창 및 작곡 기악 연주 등의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던 이번 음악회에서는 이 효은 집사님과 김희영 선생님이 각각 지휘와 반주를 맡아 주었다.
- ☞ 중등부는 7월 29일~8월 2일까지 총회신학대학에서 홍성개강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하기수양회가 열린다.
- ☞ 지난 6월 6일(목) 오전 9시 총회 신학대학 주최로 사당골 캠퍼스의 강당에서 열린 전국 성가경연대회에서 본교회 고등부가 합창부 1등, 중등부가 중창부에서 1위를 차지,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여기 출전에는 김명희, 문영란, 최인상, 추정희등 4명으로 구성된 북 2중창 팀이었다.

- ☞ 제 2회 중·고·대 합동음악회가 지난 5월 18일(토) 오후 6시 본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대학부 주최로 열린 이날의 음악회는 많은 중·고·대학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 E.B.S. 첫잔치회가 지난 5월 14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대학부 주최로 열렸다. E.B.S. 결성 1주년을 맞아 자축파티로 열린 이날은 「청년문화와 기독교의 자세」라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 ☞ 「그리스도의 존귀를 갖자」라는 주제 아래 대학부 하기수양회가 오는 7월 15일-19일(5일간) 사당골 캠퍼스에서 열린 예정이다. 강사로 후암제일교회 박희천 목사를 모신 금번 수양회의 입회비는 1,200원이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요망하고 있다.
- ☞ 고등부 하기수양회는 신성종전도사님을 모시고 7월 23~27일까지 성화산기도원에서 가진다.
- ☞ 청년부는 금년들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독서발표회가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40분 청년부실에서 가졌다. 금년들어 2번째 모인 이날의 독서 발표회는 월터·트로비치 목사의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
- ☞ 부활절을 맞아 청년부에서 특별전도를 계획하고 본회원들에게서 350여개의 달걀을 수집하여 남부시립병원으로 전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 ☞ 금년도 청년부 하기수양회가 오는 7월 16일-18일(4일간), Y MCA 캠퍼장(다락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사는 금년에 귀국하신 신성종 전도사님이시다.
- ☞ 본교회 제직회 전도부에서는 지난 6월 9일(일) 나병환자를 위한 예배처소 건축보조금 금일봉을 상현교회의 김창세 목사님께 전달했다. 성복구 상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지교회 상현교회에는 그동안 약 40여명의 나병환자들이 모여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으며 이번 보조금전달 문제는 6월 제직회에서 결의 통과된 것이다.
- ☞ 여전도회(회장:김영화 권사)는 지난 5월 14일(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기 위해 선정능에서 친교회를 가졌다.

(시)

두 기 도

앤드류 길리스

어젯밤 꼬마가
자기의 철없는 잘못을 고백하고서
내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사랑의 하나님, 아바와 같이
지혜롭고 강한 어른이 되게 해 주시요.
꼭 믿어요.”

꼬마가 잠든 후, 나는
그의 침대 옆에 무릎꿇고
고개를 꼭 숙인 채
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여기 이 꼬마와 같이
순진하고 흠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소서.”

기 지 석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라고 보여 주신 것 두가지가 있으니 곧 성만찬(마 26: 26-29; 고전 11: 23-26), 세례(마 3: 16, 17; 28: 19, 20)와 주기도(눅 11: 2-4)인 것이다.

그런데 주기도는 주님 자신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눅 11: 1-4). 기도할 때에 끝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인 것이다.

이 주기도문을 한구절 한구절 음미하며 외울적마다 원문으로 57자 밖에 안되는 이 짧은 기도문이 그처럼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구나하는 기분을 배반 느낀다. 이처럼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인 것이다.

그런데 이 주기도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 아니 남발이라기보다는 너무 이해 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각급 주일학교나 온갖 회의나 집회 등에서는 끝나는 기도로 으레 주기도를 이용한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암기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그 자세와 태도만큼은 보다 정숙하고 성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꽤 재미있다. 주기도를 하는 그 역량이 아주 리드미컬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자양각색이며 그 자세는 완전히 장난기가 섞여있다. 마치 지루한 예배가 끝날을 맡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또한 각종 집회나 회의에서 하게 되는 주기도도 이런 경향이 있다. 많은 회의나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일 하루에도 이 주기도를 적어도 7, 8회는 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주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 지루한 회의가 끝났다는 해방감에서 하나의 마침표의 구실을 하는 주기도문으로 전락시키지 않는지? 으레 끝날 때 하는 「폐회용 기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않은지?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난, 즉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끝나는 이 주기도는 깊은 이해와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도되어야 한다. 부연하고 싶은 것은, 「폐회용」으로 주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예배나 집회, 회의가 끝난 후 짧은 시간동안 모두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형>

□ 원 고 모 집 □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충현」지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종류: 신앙간증, 수필, 시,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매수: 200자 원고지 8매 정도

기간: 수시

제출할 곳: 「충현」투고함이나 교회 사무실

※ 주의: 한글로 쓰시되 외국어를 필요로 할 때는 괄호 안에 써 넣으십시오.

◇ 「충현」지 임원 ◇

<편집위원>

윤 중 순 장로(대표) 위 영 환 장로
최 석 주 장로 천 성 덕 목사 (주간)
홍 중 만 전도사 윤 명 식 집사
한 경 일 집사

<간 사>

조 선 근 집사 정 은 표 선생

◇ 사 령(社令) ◇

명, 「충현」지 기자

이	형	수	김	현	권
신	영	운	정	관	호
박	운	식	안	평	수
신	재	원	김	희	숙
백	선	혜	박	영	자
여	향	구			

※ 1974년 6월 2일부

편집하고 나서

○...「충현」지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충현주교」가 창간 된 것은, 1967년 3월. 지금의 「충현」지가 주일학교 중심을 지양하고 교회 전체를 중심으로 연 4회 발행하기로 하고 첫집을 보인 것이 1972년 4월 3일. 생을 해보면, 금년 6월쯤이면 통권 11호가 발행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9호가 발행되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이처럼 가다가 여의치 않은 뒤어 가는 버릇일랑 이제는 제발 좀 고쳐졌으면 한다. 충현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이 아쉽다면 염치 없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편집진에게만 쉬어 가는 버릇의 근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9호를 위해 애쓰고 땀 흘린 보람도 없이 다음 호인 10호의 발행에 대한 불안울 잊어버릴 수는 없게 될 것이다. <표>

○...우리는 5월에 지는 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듬해 다시금 그 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봄이 지나면 여름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는 것이 신(神)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 없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워 깨달았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소멸 속에서 생수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음울하고 암담하기만 하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밝음을 심어 주었다.

○...죽음이 우겨진 6월. 한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 죽지 않으면 사는 법이다. 이제 우리 재탄생의 기쁨을 나눠 갖자. 그러나 그전에 소생의 기쁨 속에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들. 아울러 이 「충현」을 충현의 전 가족에게 귀염둥이가 되게 손을 모으자. <현>